

남강유등·사천에어쇼까지… 축제·관광 명소 ‘경남픽 7선’

진주 유등·함양 산삼축제 등 선정
사천 에어쇼·우주항공전 22~25일
마산로봇랜드·김해 음악축제 포함
밀양 매운맛축제 월말까지 이어져

경남도와 경남도 홍보협의회가 도민과 관광객을 위해 도내 축제와 관광지를 추천하는 ‘월간 경남픽(Pick)’의 10월 7선을 선정해 30일 공개했다.

‘월간 경남픽’은 홍보협의회가 지난 5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협업 홍보프로젝트로, 협의회 참여기관이 시의성과 희소성을 갖춘 홍보 소재를 추천하면 매체별 맞춤형 콘텐츠로 제작해 홍보한다.

이번 ‘10월 경남픽’에는 ▲진주남강유등축제 ▲남해 설리 스카이워크 ▲함양 산삼축제 ▲경남마산로봇랜드 풀인 펌킨 페스타 ▲사천 에어쇼·우주항공방위산업전(GADEX) ▲경남음악창작소 뮤지시스 페스티벌 ▲밀양 매운맛축제가 선정됐다.

진주 남강유등축제는 10월 3일부터 18일까지 진주성과 남강 일원에서 열리며, 형형색색의 유등이 남강의 밤을 밝힌다. 수상불꽃놀이, 드론라이트쇼도 예정돼 있으며, 축제 기간 개천예술제와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도 함께 열린다.

함양 산삼축제는 10월 7일부터 11일



경남도 선정 ‘10월 경남픽 7선’ 카드뉴스.

까지 함양 상림공원에서는 진행된다. 산삼캐기 체험, ‘황금산삼 찾기’ 등 산삼과 심마니 문화를 주제로 한 건강·힐링 콘텐츠를 선보인다.

사천 에어쇼와 우주항공방위산업전(GADEX)은 경남도와 사천시, 공군, 한국항공우주산업 공동 주최로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사천비행장에서 개

최된다.

블랙이글스의 곡예비행, KF-21-T-50 등 시범비행, 항공기 전시, AR·VR 기반 우주항공 체험 등 풍성한 볼거리를 선보인다. 특히 올해부터 열리는 우주항공방위산업전은 국내외 기업과 기관이 참가해 첨단 우주항공·방산 기술과 제품을 소개한다.

경남음악창작소 뮤지시스 페스티벌은 10월 24일 김해 롯데가든파크 잔디광장에서 진행된다.

밀양 매운맛축제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밀양강변에서 개최한다. 특히 첫날에는 유튜버 썬아이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매운맛을 즐기는 방문객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마산로봇랜드 가을 축제 ‘풀인 펌킨 페스타’는 불꽃쇼(10월 3·10일), EDM 파티, 버스킹 등 다양한 이벤트와 더불어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남해 설리 스카이워크에서는 전망대 끝 유리바닥 아래로 펼쳐지는 해안 절벽과 바다를 향해 타는 하늘그네를 통해 남해의 가을 풍경을 즐길 수 있다.

경남도는 ‘10월 경남픽’ 7선을 10월 1일부터 공식 유튜브 ‘경남TV’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창원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경상남도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 확대

경상남도는 국비 공모 사업과 자체 사업에 총 606억원을 투입해 도내 도시가스 소외지역 6,400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새로 공급한다. 산업통상부의 ‘2026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보조사업’에는 산청군·밀양시·통영시가 선정됐다. 이 사업에는 502억원이 들어가며 3개 시군에 총 53.9km 배관을 설치해 2,695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산청군은 신안면과 단성면 1,431세대에 우선 공급하고, 이후 신등면 등 1,206세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밀양시는 상남면 일원 1,075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광주시

시민의 날 맞아 참여행사 풍성

광주시가 시민의 날을 맞아 책과 첨단기술, 마을공동체를 주제로 한 시민 참여 행사를 마련한다. 광주시는 오는 10월 3일 광주시 G-스타디움 일원에서 ‘제55회 광주시민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하나된 광주, 내일을 품다’다. 기념식에 앞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 구청원 간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행사는 오전부터 시작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G-스타디움 일원에서는 책을 매개로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광주시 북페스티벌’이 열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유진채 기자 yujin@

해남군

‘아이 키움수당’ 지급 시작

해남군이 ‘해남아이 키움수당’ 지급을 시작했다. 해남아이 키움수당은 2025년 이후 출생아에게 1세부터 7세까지 매월 20만원을 모바일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게 된다. 해남군은 2024년 임신·출산가정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기존 출산·양육 지원사업 11종을 통합·개편하고, 2025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이번 사업을 신설했다. 기존 현물성 중심으로 분산돼 있던 11개 개별 사업을 일원화해 수당으로 전환하고, 가정의 선택권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충남도, 교부세 보전·기금 배분 확대 촉구

미래대응기금에 교부세 감소 우려 충남 교부세 8조5000억원원 전망

충남도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와 관련해 교부세 감소분 보전과 기금의 지방 배분 확대 등 지방재정 안정 대책 마련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29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재정 자율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12개 시도지사 등

이 참석했다.

박 지사는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 인공지능(AI)·첨단산업 전환 등에 대응해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하려는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금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등 지방재정 안정성이 함께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이 제외되면 서 지방교부세 산정 재원이 줄어 지방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에 따르면 기존 방식으로 산정할 경우 내년 지방교부세는 전국 107조 6000억여 원, 충남 8조 5000억여 원으로 예상된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포항시, 수소·연료전지 미래 모색

‘국제수소연료전지 포럼’ 개최

포항시는 29일 라한호텔 포항에서 국내외 수소산업 전문가와 기업, 학계·연구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포항 국제수소연료전지 포럼(POFC 2026)’을 개최했다.

올해 5회째인 포럼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후원과 주한핀란드대사관 협조로 ‘글로벌 수소파트너십과 연료전지 기술의 미래’를 주제로 열렸다. 핀란드 수소 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해 수소연료전지 기술 동향과 발전 전략,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기조강연에서 헤르코 플릿 P2X Solutions Oy 대표 겸 핀란드 H2클러스터 회장은 유럽연합(EU)과 핀란드의



박용선 포항시장이 29일 라한호텔 포항에서 열린 ‘2026 포항 국제수소연료전지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수소경제 추진 전략을 소개하고, 하루 야발타 20MW 그린수소 상업운전 사례를 바탕으로 수소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전주시,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총력

대학·유관기관 등 8곳 협약 체결

전주시 등 8개기관 전주교육혁신원 위해 29일 시청3층 시민소통공간에서 전주교육혁신선도지역 협약식을 개최하고 전주, 교육 혁신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 나선다.

전주시가 교육부의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에 대비해 지역 대학 및 유관기관과 손잡고 교육 생태계 고도화에 나섰다. 9월 29일 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은 전주 교육의 체계적 혁신을 위한 실질적 연대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주시, 전주교육지원청, 전북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전주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8개 기관이 참여했다. 각 기관은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사업 선정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으며,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혁신 모델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적극 연계하기로 했다.

/전주(전북)=김근호 기자 kmo2455@

광명시, 신천~하안~신림선 조속 추진 촉구

시민 1만5990명 서명부 국토부 전달

신천~하안~신림선 신설을 촉구하는 광명시민 1만5,990명의 서명부가 정부에 전달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9일 시민대표 등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를 방문 해박재순 교통물류실장에게서명부를 전달하고 신천~하안~신림선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신천~하안~신림선은 수도권 서남부와 서울 서남권을 연결해 교통수요를 분산할 핵심 광역교통망”이라며 “시민 1만6천여 명의 뜻을 정부

가 무겁게 받아들여 사업을 서둘러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시흥 신천역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광명 하안동을 거쳐 서울 독산·신림을 잇는 총연장 16.4km의 광역철도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기다리고 있다.

광명시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천~하안~신림선이 주요 노선으로 포함된 ‘수도권 서남부선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가칭)’ 추진도 요구하고 있다.

/광명(경기)=김예원 기자 ywon@

의령군

LA한인축제서 미국 시장 공략

의령군은 오는 10월 1일부터 4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리는 ‘제53회 LA한인축제 농수산물 우수상품 엑스포’에 참가해 미국 시장 판로 확대에 나선다. 이번 행사에는 의령 지역 농식품 업체 10곳이 참여해 41개 품목을 선보인다. 군은 7개 부스를 운영하며 전시와 시식, 현장 판매, 현지 수입·유통 바이어 상담을 진행한다. 군은 올해 기존 수출업체와 함께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이 있는 신규 업체 참여도 늘렸다. 의령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과 간편식, 전통식품 등을 현지 소비자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의령(경남)=이도식 기자